

두창·매독·콜레라... 인류는 전염병을 어떻게 이겨냈나

안토니누스역병, 두창, 매독, 결핵, 콜레라, 나병, 장티푸스 등. 위에 열거한 어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렇다. 인류가 공포에 떨었던 전염병이다. 이밖에 스페인 독감, 전두엽절제술, 소아마비도 무서운 질병이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지구촌이 공포에 휩싸였다. 국경 폐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등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유행성 질병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인류는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미국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제니퍼 라이트'가 펴낸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는 전염병에 시달려온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역사를 소환한다.

책에는 익숙한 전염병부터 생소한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들이 소개돼 있다. 흑사병으로 일컫는 가래뿔페스트, 두창이라 부르는 천연두도 있으며 기면성 뇌염 등 낯선 전염병도 있다. 또한 전염병이 정결했을 당시의 상황과 전개과정,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했는지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전염병이 창궐하는 주 원인은 무엇일까. 책을 번역한 이규원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감염의 위험이 커졌고, 항공산업의 발달로 고속·대량의 이동이 가능해져 확산의 위험이 증대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제니퍼 라이트 지음, 이규원 옮김

되었다. 지구 온난화는 병원체 폭증의 위험을, 공장식 밀집 축산은 병원체 변이의 위험을, 무분별한 개발은 미지 병원체 접촉의 위험을 높였다."

사실 작금의 시대는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호기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천명한 것처럼, 20세기 이후 에볼라출혈열, 에이즈, 메르스 등 신종 전염병이 출현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역병 가운데 흑사병이 있다. 가래뿔페스트는 단순히 페스트라고 불리지만, 저자는 이를 선(腺) 페스트의 개념으로 본다. 가래뿔은 림프샘이 부푸는데 거드랑이, 생식기, 목 부분에 증상이 나타난다. 이 병에 걸리면 "꿀프공 크기의 불쾌스러운 갑상샘종이 거드랑이나 사

타구니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저자는 가래뿔은 일반적으로 "벼룩에 물리면서 전파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특정 쥐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 불리는 박테리아를 옮긴다. 그리고 함께 산다"고 덧붙인다. 결국 쥐가 죽으면 벼룩은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를 숙주 대상으로 삼는다.

천연두라 불리는 두창은 40도까지 열이 나고 구토를 동반한다. 저자는 두창에 걸린 에스파냐인 한 사람이 이 질병은 1525년경 잉카 사회에 들어왔다고 본다.

"오늘날 두창은 두창바이러스 때문에 발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감염되면 약 40도까지 열이 나고 구토도 동반되기도 한다. 그 후 발진이 생겨 투명한 액체나 고름이 차 있는 울퉁불퉁한 농포로 바뀐다."

나병은 성격에도 언급돼 있을 만큼 무서운 질병이다. 오늘날 다른 역병과 같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무서운 감염병이었다. "열린 상처나 콧속 점막을 통해 체내에 침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

"상처로 인한 감염 때문에 나환자는 사라진 손가락, 손, 혹은 발과 관련지어졌다. 세균 자체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균은 근육을 약화시켜 기형을 초래한다. 예컨대 나환자의 손은 보통 갈고리 모양이다. 손의 근육이 약해져서 손가락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사 이래 가장 미화된 전염병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위생관리를 해야 하는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결핵이다. 19세기 여배우 엘리자 라셀 펠릭스, 시인 키츠 등 예술가들이 잘 걸리는 질병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결핵은 사회적 계급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세균이 인

간의 성격이나 수입을 따져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책은 질병 퇴치나 백신, 치료법보다 일반인들에게 던지는 경각심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오늘의 상황을

함께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위기가 닥쳤을 때 문명이 제대로 굴러갈지 아닌지는 과학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산처럼·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 문정희 지음

어린 시절 시를 쓰기 시작한 지금까지 창작하고 있는 시인이었다. 짧은 날부터 뉴욕 등 세계를 샅마 부딪치며 많은 저서를 냈다. 15종의 시집과 다수의 장시집, 논문, 편저 등이 있다. 바로 보성 출신 문정희 시인.



문정희 시인이 산문집 '시의 나라에는 매혹의 불꽃들이 산다'를 펴냈다. 모어를 품고 세계와 부딪치며 문학을 살아낸 시인의 이번 산문집은 번역이든 여행기이든 내밀한 시적 노트다. 또한 매혹의 장소를 옮겨 적은 기록이며 거기에서 만나는 불꽃들과의 정답이다. 한편으로 그 불꽃을 오롯이 받아낸 시인의 예술적 열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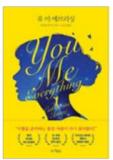
"동굴은 에로스처럼 부드러운 화살의 날갯짓으로 비로소 팍 찼다. 시가 보석이건 레지탕스 혁명이건 무엇이건 간에 시라는 위험한 물결 위에서 표류한 생애가 그 순간마음을 후회스럽지 않았다."

프랑스 낭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어느새 파리로 접어들다. 이어 루마니아의 옛 도시 쿠르테아테아르제슈를 거쳐 홍콩과 난징, 도쿄에 이른다. 다시 베네치아와 텔아비브, 산티아고와 킹스턴에 시인의 발길이 닿도하면서 특유의 감성적이며 지적인 문장이 펼쳐진다. "베네치아에 사는 동안 내내 고향 집 감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던 열네 살 소녀를 떠올렸던 것 같다. 어린 날 아버지의 관 앞에서 울던 소녀가 아직도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여정을 통해 시는 곧 자신의 몸이라고 정의한다. 달리 말하면 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라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풍경이고 생명이며 보석을 넘어 사물의 본질이기도 하다. "시는 그렇게 슬픔을 깨우며 스스로 피가 도는 생명이 아닐까." <민음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미에브리싱 캐서린 아이작 지음, 노진선 옮김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이자 전 세계 24개국에 출간됐으며 라이언스게이트 영화사가 제작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여덟 권의 책이 모두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필력을 인정받은 캐서린 아이작의 '유미에브리싱'이 출간됐다.



소설은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그리고 다시 찾아온 기회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연 십년 후 다시 만난 이들은 하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영국에 사는 33세 싱글맘 제스에게는 열 살짜리 아들이 있다. 그녀는 아들 윌리엄의 여울방학을 맞아 프랑스 도르도뉴의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이곳은 풍부한 햇살이 내리쬐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는 십 년 전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윌리엄의 친부인 애덤이 호텔을 경영하고 있다.

제스가 십 년 만에 프랑스로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푸른 정원과 멋진 수영장, 맛있는 프랑스 음식을 즐기며 쉬어볼까.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그녀는 지난 세월 아빠 되기를 거부하며 프랑스로 이주해버린 철부지 같은 애덤과 아들 윌리엄이 친밀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윌리엄에게도 아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애덤은 그다지 동의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좁아진다. 제스는 프랑스에 온 진짜 이유를 비밀로 숨기고 아이와 아빠가 서로를 좋아하고 가까워지도록 만들려 애쓴다.

소설은 철저히 제스의 시선에서 현재형 시점으로 펼쳐진다. 저자는 사랑을 때로 오랜 세월과 죽음마저 이기는 힘을 발휘한다고 본다.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만 로맨스와 판타지, 공감이 적절히 어우러져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마시멜로·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경제시장 흐름을 읽는 눈... 강준형 지음

'경알못'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실제로 경제 기사를 읽을 때 자주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에 대해 잘 몰라도 경제 기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한 후에야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걱정을 날려줄 '경제시장 흐름을 읽는 눈, 경제기사 똑똑하게 읽기'가 출간됐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 중인 저자 강준형은 경제 기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지, 자주 쓰는 경제 용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그는 경제 기사를 읽으면 전 세계 경제 이슈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 움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시사상식 및 경제상식을 함께 키울 수 있으며 금융, 물가, 부동산, 실업, 환율 등 다뤄졌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대부분의 경제 기사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1부에서는 기사 읽는 법을 소개한다. 기사란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되는지와 함께 경제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부에서는 국내 이슈와 국제 이슈를 포함한 경제 전반을 다뤘다.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관한 이슈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동시에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 최근 세계 경제 움직임을 살펴본다.

이밖에 '가짜 뉴스와 팩트 체크', '같은 수치, 다른 느낌', '수입 맥주 4캔에 담긴 만원의 비밀', '주가 상승은 왜 빨간색일까', '돈은 어디로 흐를까', '충성 없는 전쟁, 환율'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온북스·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조선의 신작 시집

꽃, 향기의 밀서

꽃, 향기의 밀서
조선의 시집

본시 땅위에 길이 없어 가는 사람에게만 길이 된다. 꽃도 풀이었다가 꽃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꽃이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꽃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내통해야만 꽃의 생애가 보이고 향기의 밀서도 받게 되는 것이다. 빛으로 오롯이 쌓아올린 철학적 성찰이 침묵의 결박을 풀고 물마루를 건너와 이야기하는 물옥잠의 향기로 밀어 귀를 기울인다. 꽃의 속삭임에는 애처로운 누이의 생애와 어머니의 새카맣게 애간장 타는 속울음이 있다. 꽃마다 대지의 조근조근한 숨길을 건너온 계절이 있다.

- 김광희 시인

조선의 시인은 꽃의 시인이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한 사물을 호명해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조선의 시인은 우리의 인식망에서 멀리 있던 실제 꽃들을 찬찬히 불러들여 고유의 향기를 부여했다. 꽃은 향기로 숨 쉰다. 그래서 꽃은 향기로 실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시인의 꽃시는 꽃을 잃은 우리 시단의 꽃시요, 향기 잃은 세상의 꽃씨다. 시인의 시집을 읽노라면 마치 시인이 테리고 나온 꽃들과의 나들이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향기 풀풀 나는 초대연에 한껏 취하고 만다.

- 김원수 시인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김만중문학상
신석정문학상
현. 서은 문예연구소 초빙교수

기독신춘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안정복문학대 등 수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꽃, 향기의 밀서』

시인 **조 선 의**